

#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엄주명 / 의학박사



일러스트레이션 / 이장화

95년 9월 어느날 22세 방 미애(가명)라 하는 미혼녀가 진료실 문을 노크했다. 멘스에정일이 지나도 멘스가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권했다. 소변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판정되었지만 임신이 자궁 내에 되었는지 또한 임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배초음파로는 확인이 안되어 질속으로 넣어보는 질식초음파를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질식초음파 기계를 질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으나 처음 다소 저항이 있어 좀더 세게 넣으려고 했으나 역시 잘 안되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성교한 경험이 있는나는 질문에 뜻밖에 관계한 일이 없고 질외사정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아차싶어 처녀막을 검사 해보니 온전하지 않은가.

본인은 결혼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

임산중절수술을 받게 되면 기계(질경)가 질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처녀막이 손상되니까 수술후 손상된 처녀막을 봉합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수술을 받기위해 남자와 같이 왔다. 수술대위에 올라온 환자의 질입구를 보니까 뜻밖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의심이 되어 왜 여기에 피가 묻어 있는냐고 하면 서진찰해 보니 아니! 처녀막이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사연을 물어 보니까 남자와 관계를 하고 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굿 아이디어"라고 했다. 기계로 처녀막이 파괴될 바에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녀성을 바치겠다는 현명한 생각인 것이다.

산부인과를 찾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성에 대한 올바른 조기교육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위 환자 이야기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질외사정하더라도 드물게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외사정방법은 백프로 안심할 수 있는 피임방법이 아니다.

둘째, 처녀막 이야기다. 처녀막이라는 것이 무슨 "막"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처녀막이란 질입구에 위치한 탄력성이 풍부한 결합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새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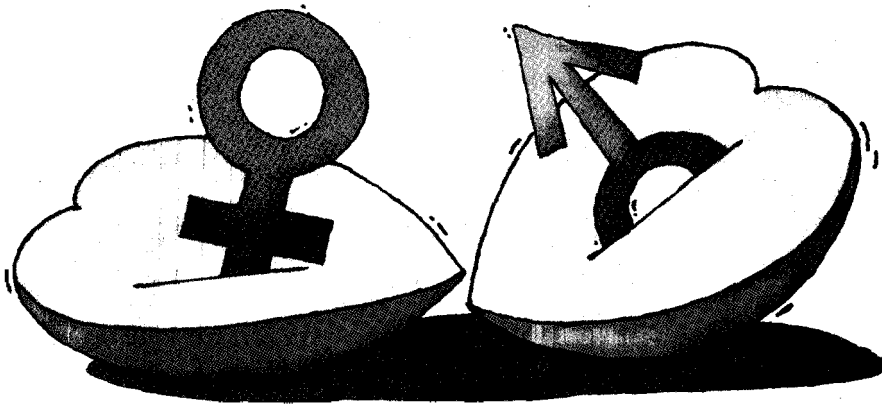
손가락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구멍이 있다. 그곳을 통해 질분비물이나 멘스가 나오는 것이다. 그 좁은 구멍이 옆으로 몇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넓어진 상태를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한다. 찢어진 부위를 다시 붙여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처녀막 재생수술”이라 한다. 처녀막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상식이 있으면 처녀막상실로 인한 정신병이나 자살 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혼전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임신된 것이 의심되면 되도록 빨리 병원에 방문

을 의사선생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가?

현재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니까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의사선생님이 현재 결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차트에 기록하실 것이다.

다섯째, 수술후 치료를 잘 받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수술경과가 좋고 후유증이 적어진다. 수술후 대부분 약 2주일 전후에 배란이 되기 때문에 멘스 나오기 전에 임신이 바로 될 수 있다. 수술한 날짜를 멘스시작일로 계산하면 되고, 다음 예정일을 전후해서 멘스는



일러스트레이션 / 이정화

하여 치료를 받아야 수술이 간단하고 경과도 좋다. 종종 임신초에 유산증세가 있어 하혈이 있는 경우를 멘스로 착각하거나 걱정되어 차일피일 망설이다 임신 4개월 이상이 되어 병원에 와서 고생하거나 후유증이 남아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결혼후 임신되어 병원에 갔을 때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혼전관계가 있어 임신중절한 사실

안 나오고 아랫배만 아프면 수술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 된다. 왜냐하면 수술후 멘스 나오는 길이 딱히 가끔 배가 아파서 당황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몇가지 유의사항들을 얘기했듯이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성에 대한 올바른 초기 교육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①